

극단 맥(脈) 환경 연극 초청 공연

바다를 살리자

새 바람 부는 날에

작 / 김경화

연출 / 이정남

● 일시 : 1997년 7월 21일 (월)
오후 4시 30분, 7시 30분 (2회 공연)

● 장소 : 늘푸른 전당 공연장

주최 : 창원 YMCA, 마창 환경 운동 연합
후원 : 국제와이즈멘 창원클럽, 월성가구 종합백화점

인사말씀

창원 YMCA 이사장 권영상
마창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양운진

자 연환경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연극을 접할 기회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 흔치 않은 일입니다. 더구나 최고의 청정해역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근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적조현상을 소재로 하여, 인간성 말살과 현대인의 나약함을 꼬집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극을 우리 지역에서 공연하게 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맑은 밤하늘에 은하수가 반짝이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소리나 아름답리 나무로 우거진 아름다운 산의 경관을 지녔던 삼천리 금수강산이 지난 30~40년 사이 엄청나게 변화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무분별한 공해·사양산업의 유치, GNP 위주의 경제성장, 기업과 행정당국의 공해에 대한 무성의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한 원인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 너무나 관대하게 대처해 왔습니다. 수돗물이 오염되었다고 하면 생수를 사 먹으면 그만이고, 쓰레기 매립장도 우리 마을에 들어서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벗어나야만 합니다.

환경오염의 문제는 결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지금 현재의 문제이고,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는 문제이며, 삶과 죽음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환경이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고 환경보전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대한 선택은 지금 죽어사느냐 아니면 천천히 죽어가느냐의 둘 중의 어느 하나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무한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끼고 보존해야 할 귀중한 재산입니다.

창원 YMCA와 마창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극단 맥(脈)이 준비하는 환경연극 "셋바람 부는 날에" 초청공연에 환경을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 연극을 계기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97. 7

작품줄거리

평 화롭고 아름다운 남해의 외딴섬 수리도, 축양장을 개장하는 축하잔치가 열리고, 할매는 손녀딸 향아를 교주의 양녀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다. 어느덧 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날로 번창하던 수리섬에 재앙이 덮치기 시작한다. 남해안 일대는 물론, 섬 주위에 점차 적조현상이 확산되고, 적조현상으로 인해 전씨의 양식장은 망하게 된다. 황사장은 적조피해 보상금을 갈취하여 도망을 가고, 옆친데 옆친격으로 유조선이 침몰해 엄청난 기름띠가 섬을 뒤덮는다. 선착장에서 놀던 향아는 미끄러져 바다에 빠져 죽고 ...

아이는 우리들의 미래이다. 우리의 미래가 환경오염, 인간오염으로 인해 갈색늪 속의 삶이 된다면?

연출의 변

연출 이정남

현 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대두되는 자연질서의 파괴, 즉, 오염으로 인한 환경파괴, 인간성 상실로 인한 비인간화의 문제, 인간들의 극단적인 개인 이기주의의 심각성, 남해안 일대와 부산 앞바다의 기름유출, 해마다 찾아오는 적조현상, 각종 공해물질의 유출,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내다버리는 각종 생활 오·폐수로 인해 파괴되어가는 자연생태계는 우리 인간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종말론, 사이비 종교의 난립, 그 종교가 가지는 도덕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이비 종교, 인간성 상실의 문제,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현대인들의 나약함과 도덕성, 섬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무대화 시킬지, 오염된 바다를 어떻게 형상화시킬지 나름대로 고민하고 현장답사를 거쳐 작품을 올리면서도 관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거부하면서 자연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파렴치한 행동들, “사회주의 동물”이라는 인간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병폐로 말미암아 우리의 산과 바다, 땅이 죽어가고 있다. 21세기의 물질자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성 상실의 문제와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질서의 파괴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 삶의 기본입장을 정리하고 우리가 되돌아 보고 획득해야 할 인간성 회복과 자연의 조화로운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 수리섬이라는 가상의 섬을 통해 현대인들의 모습을, 현재 우리 삶의 모습들을 - 되돌아 보자.

“환경을 살리자”는 캠페인에 동참하여 나로부터 실천하고, 개개인이 각 가정에서 비인간화로 야기되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들을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로”의 회복을 이 작품을 관극하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는 바이다.

출 연 진

(배역 / 배우)

할 매/이현주, 전사장/어주선, 황사장/김동우, 파주댁/손경하, 배서기/김도형
구 복/권대희, 향 아/김대옥, 사교주/김만중, 남해댁/송진아, 통영댁/박은경
동네사람/김순규, 동네사람/조영미, 동네사람/이재성

제 작 진

제 작/박종갑, 기 획/이우길, 무대감독/신희석,
조 명/유은경, 분 장/손서운, 음 향/심미란, 진 행/이현옥